

우리를
행복하게
만드는
잠시^詩

겁쟁이

“너희 동네는 괜찮니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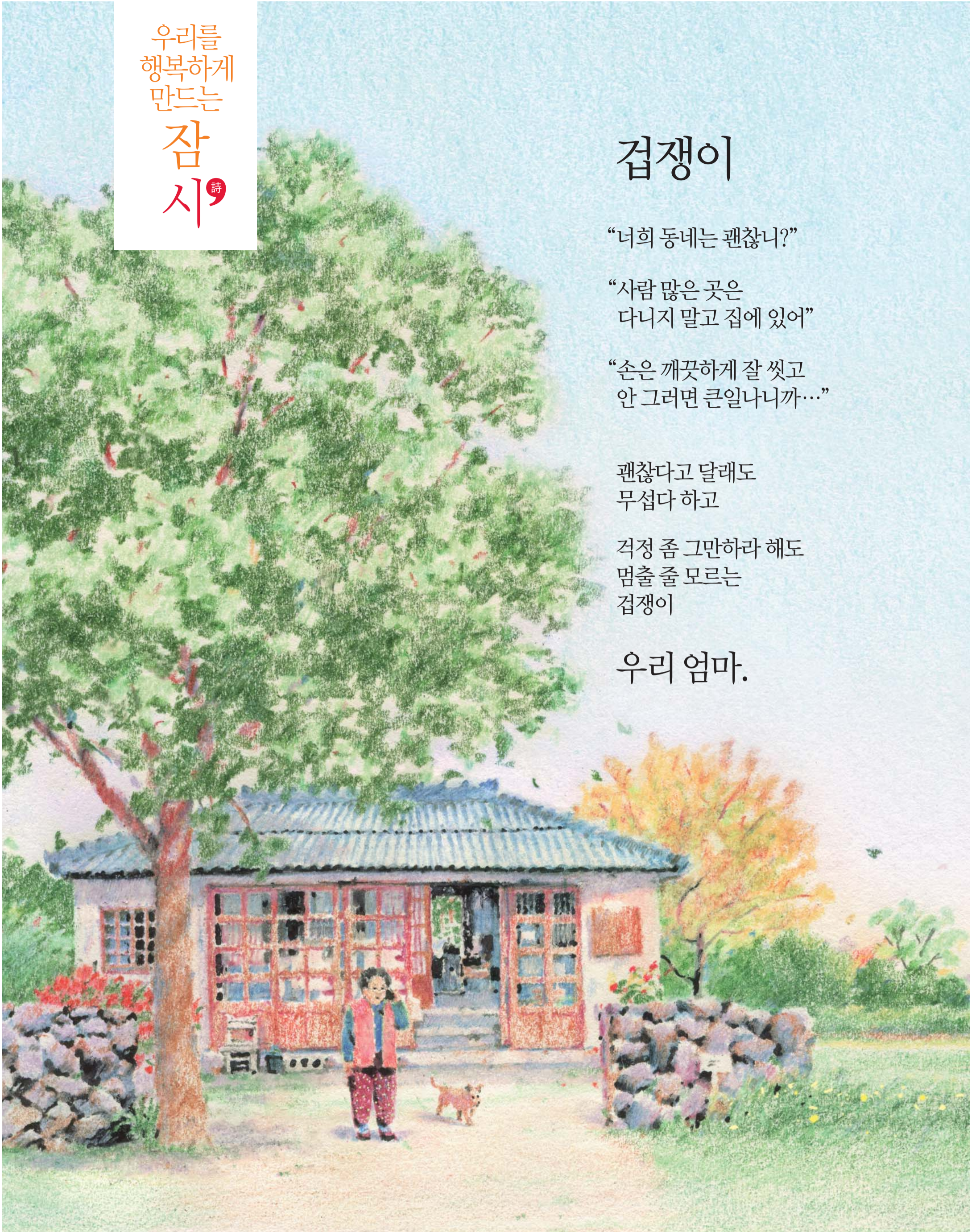
“사람 많은 곳은
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”

“손은 깨끗하게 잘 씻고
안 그러면 큰일나니까...”

괜찮다고 달래도
무섭다 하고

걱정 좀 그만하라 해도
멈출 줄 모르는
겁쟁이

우리 엄마.



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행복입니다

모두가
함께, 행복하도록 **SK**